

환자안심병원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3월 4일(화) 4층 대강당에서 환자안심병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 내빈으로는 신경림 국회의원, 서울시 복지건강실 강종필 실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준 사무관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향후 포괄간호서비스의 발전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 서울의료원 김민기 의료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 국회의원 신경림 의원, 서울시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의 축사 ▲ 서울의료원 이인덕 간호부장의 운영 경과보고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의 환자안심병원 종사자의 조직인식 변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인 유선주 환자안심병원지원단장의 환자안심병원 비용편익 분석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의 Missed Nursing Care, 환자만족도 조사 결과 ▲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동 심선숙 파트장의 환자안심병동 간호사례발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준 사무관의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 정책방향 등 정부 관계자, 학계, 의료계 현장 등 각계 전문가들의 향후 포괄간호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환자안심병원은 지난해 1월 17일 90병상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4일 90병상을 추가하여 총 180병상 규모로 정식 오픈하고 시민 모두에게 선진국 수준의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환자안심병원 사업의 우수한 성과와 선도적인 시스템을 인정받

아 보건복지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도 200병상 유치하여 국내 최대 규모는 물론 의료기관 최초로 일반 병상 100%인 380병상을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사업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원 전 직원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병원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었다.

의료원은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간호사, 보조원, 사회복지사 등 총 17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했고 80여 명의 간호사를 신규 채용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다.

환자안심병동 이승아 간호사는 “환자안심병동 근무가 일반적인 병동 근무보다 힘든 점은 사실입니다” 라고 전하며 “하지만 환자의 24시간을 가족과 같이 돌볼 수 있어 전인간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안심병원은 지난해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서 200여 차례 이상의 보도 실적이 있고 2013 서울시 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선정한 최고의 정책 1위’로 선정되는 등 시민의 높은 공감은 물론 의료원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김민기 의료원장은 심포지엄에 앞서 “간병이 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랜 논의를 거쳐 환자안심병원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포괄적간호서비스가 성공적인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자리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암예방의 날’ 기념식서 국무총리상 수상

서울의료원은 지난 3월 21일(금) 보건복지부 주최,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열린 ‘제 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민들의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며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의료원은 2004년 암센터 설립 후 지역사회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암관리사업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등 국가암정책 사업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특히 신축이전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신설하여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의 총체적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

한 환경, 인력, 장비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단기간에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김희정 사회복지사는 의료원 신축이전 시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데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국가암관리사업 유공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민기 의료원장은 “이번 수상을 통하여 서울의료원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 공공병원으로서 암센터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암은 예방 가능한 질환’임을 홍보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수술실 발전 워크숍 개최

소통을 통한 수술실 개선 운영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

서울의료원 수술실은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지난 3월 8일(토) 오전9시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외과계 전문의 23명과 수술실과 관련된 임직원 33명이 참석하여 수술실 개선 운영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워크숍은 1부는 강순원 특수간호팀장의 수술실 현황 발표와 각 진료과별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2부는 마취과 이준용 주임과장의 전신마취와 부위마취 개요에 대한 발표와 수술실 발전방향의 대한 조별토의와 발표가 있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술실 8개방 운영 시작하며, 특히 외과 2개방 배정 ▲의료장비 코드화 및 장비보유정보 공유를 통한 활용률 증대 ▲유사재료 축소 및 절감 협조를 통한 재료비 절감 ▲음악, 냉난방 등 우선순위를 환자 위주를 설정하여 한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술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진료과의 의료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대문 아토피 가족힐링캠프 운영

아토피 환아와 가족을 초청하여 오늘 6월부터 진행

아토피 환아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의료원은 동대문구 보건소와 지난 2월 25일(화) 캠프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동대문구 아토피 가족힐링캠프는 아토피 환아와 가족을 초청하여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1박 2일 동안 경기도 가평군 설악산 다일 자연치유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아토피캠프는 아토피 교육과 다양한 체험을 통한 아토피 피부염 구연동화, 친환경 소품 만들기, 아토피 영양관리, 숲체험이 마련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앞으로 아토피안심학교 사업 및 환경성질환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가 추진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김규상 환경건강연구실장은 “그동안 서울의료원의 아토피캠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캠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2016년까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예정

서울의료원은 지난 2월 7일(금)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이하 교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천식 응급환자 전문상담 및 진료연계 등 응급 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함에 따라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관리, 교육 홍보사업, 보건소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통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의료원은 교육정보센터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규상 교육정보센터장(환경건강연구실장)은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아토피·천식 질환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의 인식을 높이며, 적절한 치료와 위험 예방을 선도하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행동호회 시산제 개최

한마음 한뜻으로 2014년 경영목표 달성 기원



서울의료원 산행동호회는 지난 3월 22일(토) “2014년 경영목표 달성 기원”을 위한 시산제를 실시했다. 이번 산행에는 양순재 의무부원장을 포함해 전문의, 간호부, 보건직, 관리직 등 다양한 직종의 총 35명 직원들이 참가했다.

이번 산행의 목적지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에 있는 앵자봉으로, 앵(鷹)은 피꼬리 앵자, 피꼬리가 알을 품고 있는 산새라 하여 피꼬리봉으로 불리다가 한자로 표기할 때 앵자봉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웃한 양자산(710m)을 신랑산으로 보고 두 산을 부부라고 보고 있어 부부가 함께 오르면 부부금실이 좋아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이번 산행코스는 천진암 주차장을 출발하여 앵자봉 등산로 → 소리봉 → 박석고개 → 앵주봉 → 천진성역까지 돌아오는 등산코스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초급자 코스여서 등산경험이 없는 직원들도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었다.

산악회의 가장 큰 행사인 이 날 시산제는 2013년에 이어 사업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 형성 및 직원 상호간의 단합과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시산제를 통해 여러 직종의 직원들이 무사안전 산행과 병행발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산행동호회는 따뜻한 봄 날씨에 참석한 모든 직원들이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무사히 산행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통해서 서울의료원의 건강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요일은 다 먹는 날’ 행사 개최

매달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 직원식당 잔반 줄이기 노력



불필요한 잔반 줄이기를 위한 캠페인이 직원식당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영양팀은 지난 달부터 잔반 줄이기를 위한 이벤트로 ‘수요일은 다 먹는 날(수다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3월에는 자신이 담은 음식을 다 먹은 직원들에 한해 쿠폰을 제공

하며, 쿠폰은 삶은 달걀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또한 계란 중에는 총 5개의 ‘행운의 계란’이 감추어져 있어 ‘행운의 계란’을 뽑을 시에는 해당직원 부서원 모두에게 직원식당 조리장이 직접 만든 수제 샌드위치를 직접 전달해 주었다. 영양팀은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낭비를 줄이는 습관을 갖자는 취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OPINION



2011년 봄, 저희 서울의료원은 신축이전하여 다소 어려운 입지조건과 주위의 개원가의 오해와 견제 속에서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축이전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기존 환자 수를 회복하였고, 2012년, 2013년 계속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해왔

습니다.

이제, 올 한해 2014년도만 대과 없이 목표 달성을 이룬다면 내년부터는 승승장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2년 9월, 제가 의무부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3가지 중점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첫째는 전직원의 의식의 개혁, 둘째는 발전적 조직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었습니다.

안일한 근무태도, 개인, 부서, 직종간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평생직장으로서의 주인의식 결여 등에 대한 의

식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리더십 부재로 인한 목표의식 상실, 경험 및 경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부재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전적 조직의 변화 또한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업무환경 개선, 동기부여, 그리고 의료원 홍보활동을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작년 이맘 때,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느낄 새 없이 우리 모두는 보건복지부 인증평가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많은 깨달음과 의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소화기의 모든 질환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소화기센터를 개설하여 진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고, 매주 목요일 정례소통회의와 월간 소식지 '서울의료원 플러스'를 발간하여 직원간의 소통과 병원 홍보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수술실 확대 및 집중관리, QI실 강화, 간호

부 조직 확대, 그리고 원무심사팀 업무강화를 위해 원무파트와 심사파트를 분리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업무효율성 향상 및 동기부여를 위한 '특진 인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은 꼭 그 대가 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모든 개혁은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병원 개혁의 방향설정과 시작은 집행부, 원장단에서 했지만, 그 성공의 열쇠는 직원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우리들은 스스로의 저력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푹푹 뭉쳐 하나가 된 모습, 일부 비협조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100% 완전 협조로 바뀌는 모습, 일부 무관심에 의한 불안함이, 당일 100% 적극 참여의 열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의료원의 무한한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글. 양순재 의무부원장

동부병원

개원 85주년 기념일에 1사1촌
결연마을 풍경 담은 사진전 열어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원장 김경일)은 지난 3월 13일 개원 제8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동부병원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오미마을의 풍경을 담은 이번 사진전에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김용국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라남도 구례 오미마을과 동부병원은 1사1촌 협약 이후 매년 2회 진료봉사를 통하여 활발한 교류를 하였고, 오미마을 측에서 감사의 의미로 마을의 풍경과 시골의 정취를 담은 사진을 기증하였다. 이에 동부병원은 개원기념일에 기증받은 사진으로 사진전을 열어 진료봉사 교류 외에 문화적인 측면까지 소통하는 공공병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진전으로 모인 후원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북부병원

‘재미있는 병원’ 워크숍 진행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원장 권용진)은 지난 1월부터 ‘재미있는 병원 TF’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모여 ‘재미’있는 일을 꾸민다. ‘재미있는 병원 TF’는 ‘즐거움 상상’을 통해 직원과 환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흥미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주요 업무다.

‘재미있는 병원 TF’는 지난 20일(목)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재미있는 병원, 즐거운 상상’이라는 주제로 ‘소셜 픽션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사회혁신 공간 ‘There’의 도움으로 국제 공인 퍼실리테이터인 인피플 주현희 이사를 초청하여 병원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 공무원, 학생, 환자, 보호자 등 병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기존 ‘병원’이라는 공간이 줬었던 인식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환자가 행복한 병원’, ‘외롭지 않은 병원’, ‘생로병사를 대비하게 해주는 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 ‘편안한 휴식을 주는 쉼터 같은 병원’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이와 함께 ‘걷고 싶은 계단 조성’, ‘동화 속 주인공이 된 환자’, ‘병원 CM송 제작’ 등 수십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병원은 이날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부터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서울시 소식

소장품 사진 기획전 <콘택트 CONTACT>

- ✓ 전시기간 : 2014.03.04(화)~05.18(일)
- ✓ 전시시간 : 평일 10:00~20:00 / 토.일.공휴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휴관
- ✓ 장소 : 북서울미술관 사진갤러리 1, 2
- ✓ 부문 · 작품수 : 사진, 설치 /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160여점
- ✓ 참여작가 : 안상수, 육명심, 이상현
- ✓ 도슨트 시간 : 매일 2회(오후 12시 / 3시)
- ✓ 관람료 : 무료

- ✓ 주최 및 후원 : 서울시립미술관
- ✓ 문의 : 서울시립미술관 ☎ 02-2124-5270)

- 전시내용 -

<콘택트 CONTACT>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가운데 인물사진 16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사진갤러리에 마련된 본 전시의 1층에서는 안상수의 ‘원아아 프로젝트’가, 2층에는 육명심의 ‘예술가 시리즈’와 이상현의 ‘최승희’가 전시된다.



2014 충전소풍

이제 막 봄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날 우리들의 충전소풍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풍에 대한 기대감 반 불안감 반으로 뭔가에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계단을 오르면서 심장 한쪽이 두근거림을 느끼며 알 수 없는 기분에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대학로 있더니 약속장소인 스타벅스 2층으로 소풍가려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 작은 침묵들이 흐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서울을 구성하는 내사산(內四山:북악산·남산·인왕산·낙산)의 하나인 북악산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낙산공원에 오릅니다. 낮과 밤이 다른 대학로 뒷골목을 지나 비탈길을 조금 오르니 금세 공원 입구입니다. 생각보다 작았지만 공기도 다르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니 가슴이 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낙산공원을 한 바퀴 돌고 이화동 벽화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담벼락과 계단에 재치 있고 센스 넘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 사진 찍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진도 찍고 찍어주고 벽화감상도 하면서 마을을 돌고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닫혀있던 상점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와 빵으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적으로도 만나기 힘든 타부서 사람을 10명이나 만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내에 아는 사람이 10명 더 늘었습니다.

글. 재활의학센터 김나라 차장



인간관계도 형성했고 매콤 달달한 봉추찜닭으로 배도 불리고 진료부장님 추천의 씨앗호떡으로 후식도 챙겨 먹었습니다. 이제 어색한 분위기도 풀리고 한바탕 웃을 준비를 하고 옷차사 전용극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담 없이 웃고 싶어서 찾은 개그공연. 신나게 웃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평균 하루에 고작 2~3초밖에 안 웃는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10년치는 웃었습니다.

웃음의 여운이 남아있는 가운데 짧은 하루에 아쉬움을 남기고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며 소풍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른 공간,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줄로 묶어 소풍을 보내니 처음에는 다른 곳을 보다가 나중에는 점점 한곳을 보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이제는 원내에서 만나면 몸시 반가운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충전소풍이라는 일탈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세상과 사람을 느끼고 여유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직원

정형외과 최혜연 과장 / 전문진료분야: 견관절학, 스포츠의학

안녕하세요~ 3월부터 정형외과에 근무하게 된 최혜연입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병원으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천하는 서울의료원에서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사지와 척추 근골격계 관련질환을 다루는 정형외과 중에서도 어깨관절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명 중 7명꼴로 어깨 통증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 10명 중 6명이 한 번 이상 심한 어깨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오십견이라 하며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동결견,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등 다양한 질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깨 및 상완 부위의 손상도 빈번해 지는 추세입니다. 근육이나 인대, 힘줄의 손상뿐 아니라 관절와순, 연골 등의 손상도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CT, MRI 등의 진단기술의 발전과 질환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의사를 찾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전문적 치료를 받는다면 명확한 진단과 함

께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경 수술법의 발달로 치료방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결과가 좋아졌으며 어깨 인공관절까지도 가능합니다.

어깨 관절부분은 정형외과 영역 중에서는 비교적 최근 시작한 분야이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신 지견의 습득과 그에 따른 진료,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자를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는 서울의료원 식구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03-01	조진경	내과	03-06	이지혜	외래간호팀
03-03	이푸름	병동간호팀	03-06	권은지	응급의료센터
03-03	최혜리	병동간호팀	03-10	이한나	산부인과
03-03	서진영	병동간호팀	03-10	김자영	산부인과
03-03	박경선	병동간호팀	03-10	김정만	가정의학과
03-03	장준욱	건강증진센터	03-10	정혜영	가정의학과
03-03	최혜연	정형외과	03-17	김정환	정형외과
03-03	장기현	영상의학과	03-17	김성두	간호부
03-04	김도희	건강증진센터	03-18	김형애	식당
03-04	차은지	건강증진센터	03-20	정준희	이비인후과
03-04	이민경	영상의학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03-06	김재훈	외래간호팀	김민숙	간호교육팀장 임명
03-08	손진희	병동간호팀	유승원	총무부장 서리 임명
03-12	이효원	치과	조규성	계약심사팀장 임명
03-12	김미란	치과	신교섭	기획경영팀장 직무대행 임명
03-14	송정민	병동간호팀	이연식	원무심사팀장 임명
03-14	강보람	건강증진센터	김학진	총무팀 인사차장 임명
03-14	홍예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03-15	전세영	병동간호팀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03-15	최혜은	영양팀	03-22	김혜근	간호부
-------	-----	-----	-------	-----	-----

언론 속 서울의료원

신문

중량신문(2.28) : 취약계층 돕는 서울의료원 다사랑회 출범
 뉴시스헬스(3.4) :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심포지엄 개최
 의약뉴스(3.4) :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헤럴드경제(3.5) :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병원신문(3.6) : 환자안심병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월간지 베이비(3월호) : 아토피피부염에 관한 사소한 오해 (글: 소아청소년과 염혜영 주임과장)

방송[TV]

■ SBS생활경제(2.27) : 8겹 양파 속 숨은 효능(김석연 심혈관센터장 출연)
 ■ YTN(3.24~3.30) :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캠페인

방송[라디오]

■ tbs교통방송 '건강센터' (3.17~3.21) : 내과 김수현 과장 출연
 (3.24~3.28) : 가정의학과 김무영 과장 출연

공지사항

tbs교통방송 라디오, 서울의료원 의료진 고정출연

■ 프로그램: tbs 건강센터
 ■ 방송기간: 2013.3.17(월) ~ 5.16(금) 9주간 진행 예정
 ■ 방송시간: 월~금 오후 5시 55분
 ■ 참여 전문의: 호흡기내과 김수현, 가정의학과 김무영, 이비인후과 김지훈, 정형외과 김기천, 외과 이슬, 정신건강의학과 이해우, 산부인과 육지형, 신경외과 장세연, 류마티스내과 최병용



순환기내과, 가정의학과 이전 안내

1층 내과 외래에 위치해 있던 순환기 내과와 2층에 위치해 있던 가정의학과가 만성질환 상담실과 함께 지난 3월 3일(월)에 1층 에스컬레이터 옆 진료과(구.소아과)로 이전됨을 알려드립니다.